

Week Ahead Snapshot

다음 주 주목할 금융시장 이슈(12/15~19)

(전략/퀀트) 유영간

myounggan.yoo@miraeeasset.com

(선진국 전략) 김성근

sungkeun.kim@miraeeass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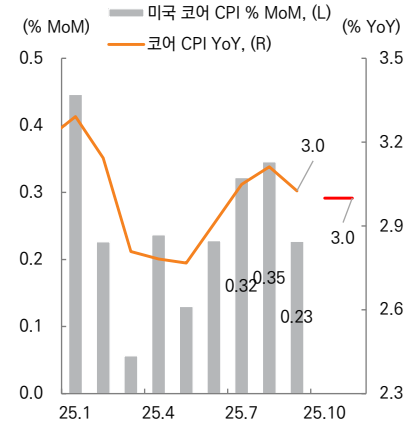
(채권) 민지희

jihee.min.a@miraeeasset.com

[경제/채권]

- 12월 FOMC는 25bp 금리 인하 단행했고 내년 연간 25bp 금리 인하 전망 유지.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 다음 주 10월 미국 소매판매(11/16), 11월 미국 비농업 고용(11/16), 11월 미국 CPI(11/18) 예정. 11월은 섀도우 영향으로 고용과 인플레이 둔화 가능성이 높음. 다만, 파월 의장은 섀도우로 인해 일부 지표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내년 초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양호한 소비, 높은 인플레이 고려해 상반기 연준 금리 동결 및 미 10년 금리 4.0~4.2% 수준 등락 전망
- 한국 11월 고용지표에서는 숙박/식음료업 고용이 전년대비 다시 감소. 소비쿠폰 지급 효과 약화, 민간 부문 고용 둔화로 인해 내년도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가능성 낮다고 판단. 기재부는 내년도 장기(20년 이상) 국채 발행 비중 축소 발표. 현재 국고채 금리 레벨 매력도 높음, 원화채권 저가매수 기회 활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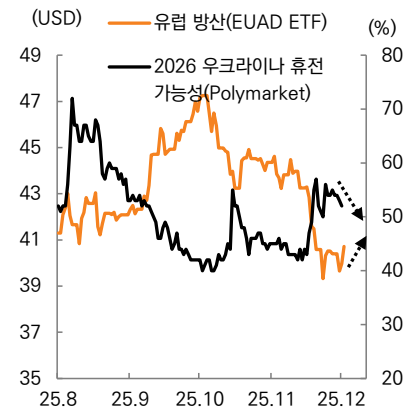
11월 코어 CPI, 9월 대비 소폭 둔화 예상



글로벌 주식

- 이번주 S&P500(+0.4%)은 12월 FOMC 영향으로 상승 마감. 나스닥(+0.1%)은 오라클 실적발표를 계기로 테크 수익성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약세
- 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는 지속될 전망. 시장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오라클의 Capex를 부정적으로 평가. 오라클은 예상(82.5억달러)보다 높은 Capex(120억달러)를 발표하는데 FY26년 Capex 가이드(500억달러)도 40% 인상. 반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p 이상 하락해 수익성은 악화. Capex 우려와 관련해 주가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오라클 CDS 프리미엄 관찰 필요. OpenAI 외 다양한 고객사도 확보해야 하는 점도 과제. 브로드컴도 엔트로픽 외 다른 기업들로부터 신규 수주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
- 한편 EU 정상회담(12/18)에도 주목. 우크라이나의 지원 패키지에 대한 합의 여부가 관건. 합의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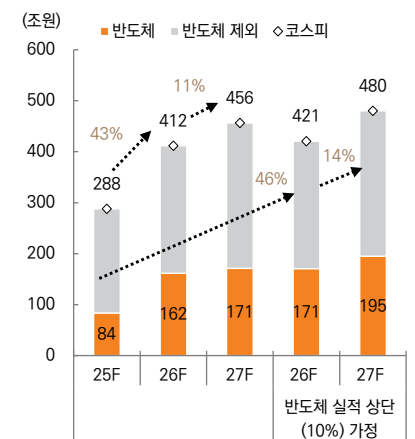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과 유럽 방산 주가



[국내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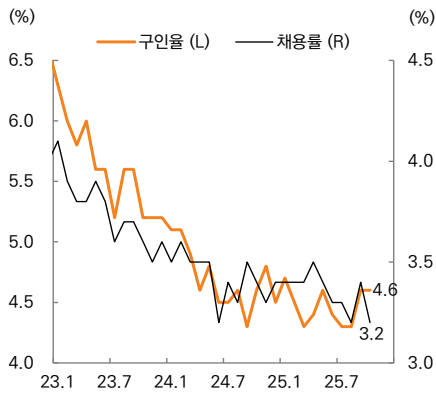
- 연준 금리인하에도 오라클 실적 부진에 따른 AI 수익성 논란 이어지며 한주간 코스피는 정체 흐름(+0.3%). 코스닥은 활성화 정책 기대 이어지며 +1.1% 상승
- 국내 기업들의 이익모멘텀은 긍정적인 흐름 지속. 4Q25,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간 각각 +2%, +3% 상향 조정. 반도체, 지주, 에너지, ITHW의 이익모멘텀이 개선. 2차전지, 운송, 보험, 건설, 철강은 하향 조정
-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12조원(+43%YoY). 반도체 162조원(+93%YoY), 반도체 제외 260조원(+24%YoY). 내년 2분기까지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과의 이익 증가율 스프레드는 확대 추세. 한편,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3배로 5년 평균을 소폭 하회(12/11 기준).
- 코스닥 및 반도체를 포함한 전력기기, 방산, 조선 등 내년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 다음주 미 11월 고용보고서(12/16), CPI(12/18) 발표에도 주목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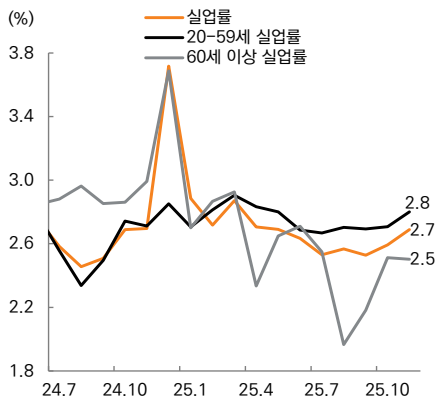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리뷰

9, 10월 미국 JOLTS 구인, 이직보고서 (12/9 발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1월 한국 실업률 (12/10 발표)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9, 10월 JOLTS 구인건수 예상치 상회

- 첫다운 영향에 9, 10월 JOLTS 구인, 이직보고서 동시 발표. 9월 구인건수는 765.8만건으로 전월치(722.7만) 및 예상치(719.8만) 모두 큰 폭 상회. 10월 구인건수도 767.0만건으로 예상치(711.7만) 크게 상회
- 9월에 구인건수 증가 견인한 업종은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26.7만), 레저 및 접객업(+8.9만) 등. 9월 도소매업, 운수 및 유틸리티 구인건수(-2.5만)는 전월비 감소했지만, 10월에는 +23.9만건으로 반등.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구인건수는 10월에 -11.4만건으로 반락
- 9, 10월 구인율 모두 4.6%로 8월(4.3%) 대비 반등. 채용율은 8월의 3.2%에서 9월(3.4%)에 반등 후 10월(3.2%)에 다시 반락. 9, 10월 해고율은 각각 1.1%, 1.2%로 8월(1.1%)과 비슷한 수준 유지

핵심 연령층 중심으로 11월 한국 실업률 증가

- 11월 한국 실업률(계절조정)은 2.7%로, 전월(2.6%) 대비 상승
- 20에서 59세 실업률이 전월의 2.7%에서 2.8%로 증가하며 실업률 상승 견인. 반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전월의 2.5%와 동일. 세부적으로는, 20대 실업률은 2.8%로 전월(2.7%) 대비 상승. 30대 실업률은 3.1%로 전월(2.9%) 대비 상승하며 21년 10월 이후 최고치 기록
-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2.5만명 증가.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28.1만)이 취업자 수 상승 견인. 이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3만),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6.1만) 등 취업자 수 상승. 단, 건설업 취업자 수는 -13.1만명, 제조업에서는 -4.1만명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Date	Region	Economic indicator/event		Survey	Prior
12/15	미국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	10.5pt	18.7pt
12/16	미국	11월 비농업 신규고용	★★★★★	5.0만	-
	미국	11월 실업률	★★★★★	4.4%	-
	미국	10월 헤드라인 소매판매 MoM	★★★★★	0.3%	0.2%
	미국	10월 핵심 소매판매 MoM (자동차 및 주유소 제외)	★★★★	0.4%	-0.1%
	미국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	★★★★★	-	52.2%
	미국	1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	★★★★★	-	54.1%
12/17	유로존	11월 헤드라인 CPI YoY (최종)	★★★★★	-	2.2%
12/18	유로존	12월 ECB 금리결정 (단기수신금리)	★★★★★	2.00%	2.00%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	-	23.6만
	미국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	★★★★	-	183.8만
	미국	11월 헤드라인 CPI YoY	★★★★★	3.1%	-
	미국	11월 코어 CPI YoY	★★★★★	3.0%	-
12/19	일본	11월 헤드라인 CPI YoY	★★★★★	2.9%	3.0%
	일본	11월 코어 CPI YoY (신선식품 제외)	★★★★	2.9%	3.0%
	일본	12월 BOJ 금정위	★★★★★	0.75%	0.5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미국 10월 CPI는 미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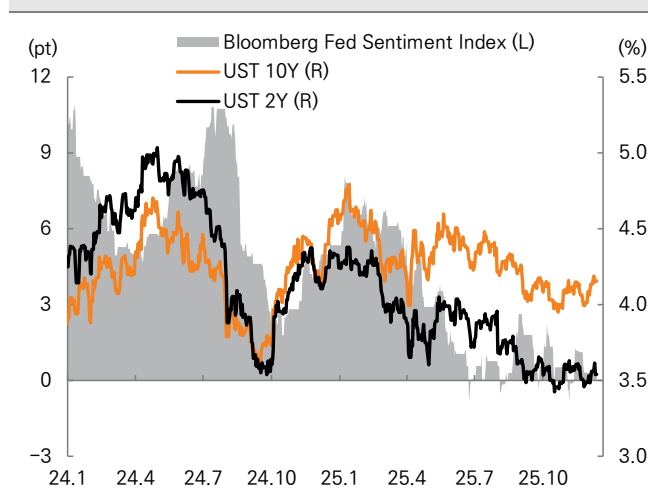
미국 연준인사 발언

연준 인사 주요 발언 내용

발언 날짜	위원	이사	투표권	성향	내용
12/10	파월	O	O	O	- 현재 금리는 다양한 추정치 기준으로 중립 수준의 넓은 범위 안에 위치해 있음 - 생산성 상승이 중립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히 논의되는 중 - 소비지출이 견고하고 AI 관련 설비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성장률이 꽤 견조할 가능성이 큼 -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인플레이의 2% 목표는 변함없음. 다만 지금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는 중 - 상품 인플레이 상승은 관세로 인한 것이고 내년 1분기 전후가 관세발 인플레이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고용은 월 약 6만개 정도 과대계상되어 있음 - 현재 누구도 금리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보지 않음 - 주택 시장은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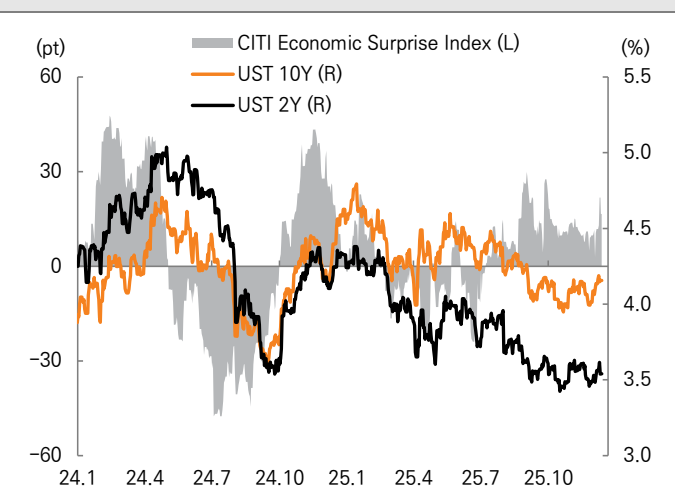
주: 성향은 -2(도비쉬) ~ +2(호퀴시)로 분류 /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모델 연준발언 분석 및 시장금리 추이



주: (+) 호퀴쉬, (-) 도비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및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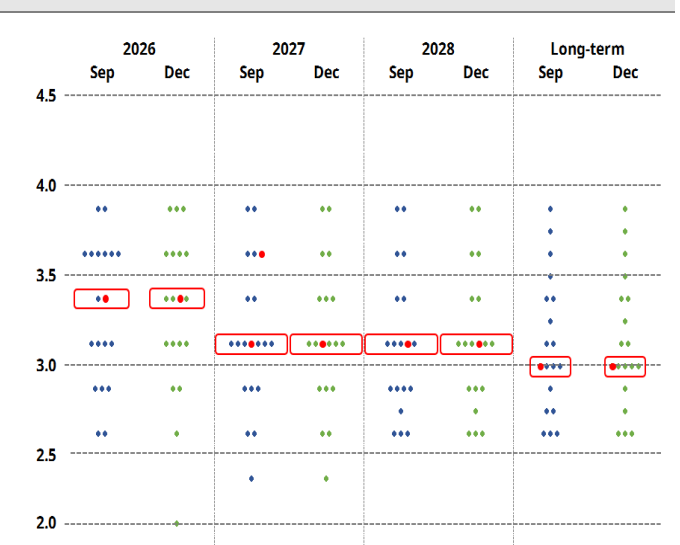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블룸버그 평가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 성향

Group	Region/role	Name	Vote	Sep. 2024	Dec. 2024	Feb. 2025	Jun. 2025	Jul. 2025	Sep. 2025
Board of Governors	Chair	Powell	O	0	0	0	-1	0	0
	VC of Board	Jefferson	O	0	0	0	-1	0	0
	VC for Supervision	Bowman	O	+2	+2	+2	0	-2	-2
		Barr	O	0	0	0	0	0	0
		Waller	O	+1	+1	+1	-2	-2	-2
		Cook	O	-2	-2	-2	-1	-1	-1
		Miran	O	-	-	-	-	-	-2
New York	VC of FOMC	Williams	O	0	-1	-1	0	1	-1
Group 1	Boston	Collins	O	0	+1	+1	0	0	0
	Philadelphia	Paulson	X	-	-	-	-	0	-1
Group 2	Richmond	Barkin	X	+1	+1	+1	0	+1	+1
	Cleveland	Hammack	X	+1	+1	+1	+2	+2	+2
Group 3	Chicago	Goolsbee	O	-2	-2	-2	0	-1	0
	St. Louis	Musalem	O	0	+1	+1	+1	+1	+1
Group 4	Dallas	Logan	X	+1	+1	+1	+2	+1	+1
	Atlanta	Bostic	X	0	0	0	0	0	0
Group 4	Kansas City	Schmid	O	+1	+1	+1	+1	+1	+2
	Minneapolis	Kashkari	X	+2	+2	+2	+2	0	0
	San Francisco	Daly	X	-1	0	0	-1	-1	-1
(-) = dovish; (+) = hawkish				0	+1	0	-2	-3	-5

주1: 주황색은 투표권, 주2: 성향은 -2(도비쉬) ~ +2(호퀴시)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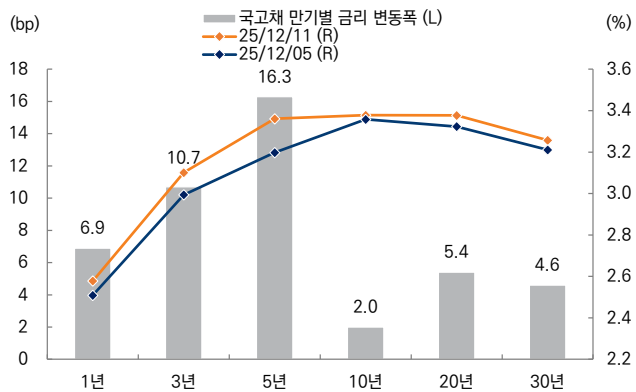
FOMC 점도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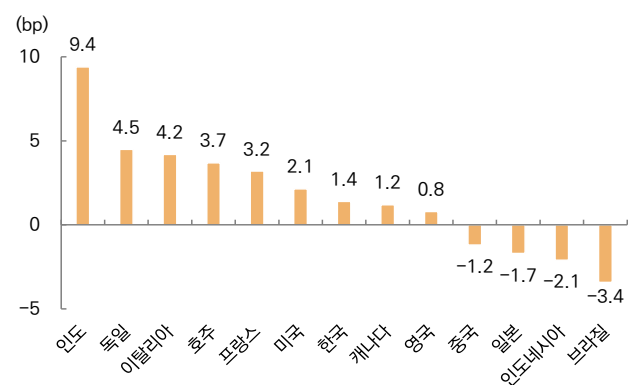
자료: Fe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국 금리 및 원자재 가격 동향

주간 국고채 커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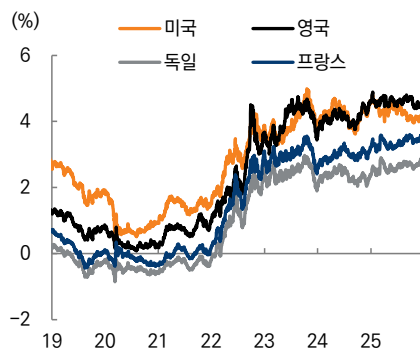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주간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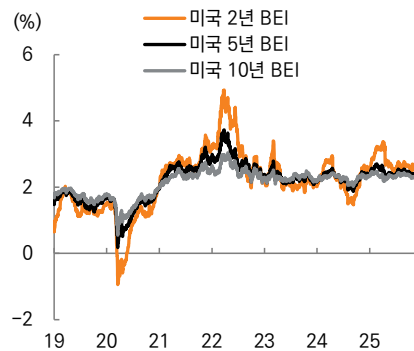


주: 12/5(금) ~ 12/11(목)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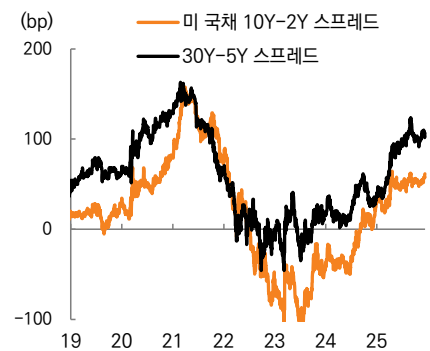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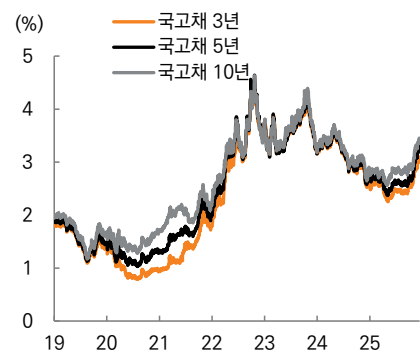
미국 만기별 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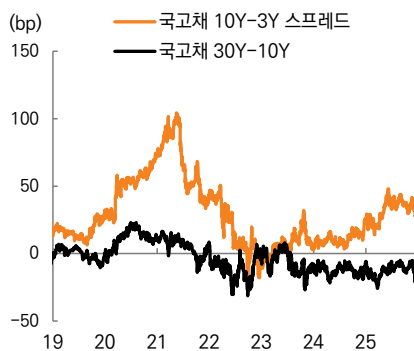
미 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국고채 3, 5,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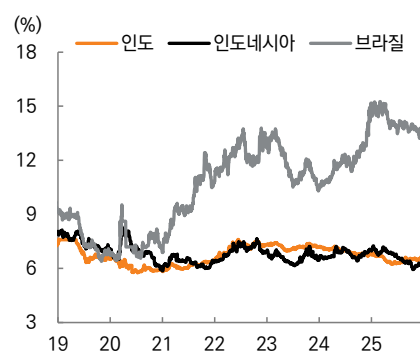
국고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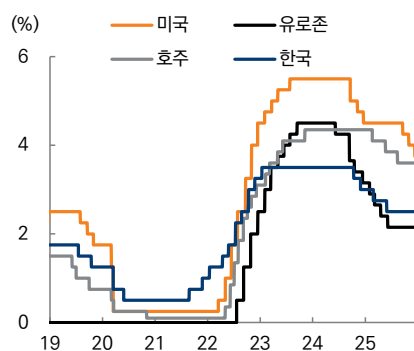
한국 회사채(AA-) 금리 스프레드



신흥국 국채 10년물 금리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원유 및 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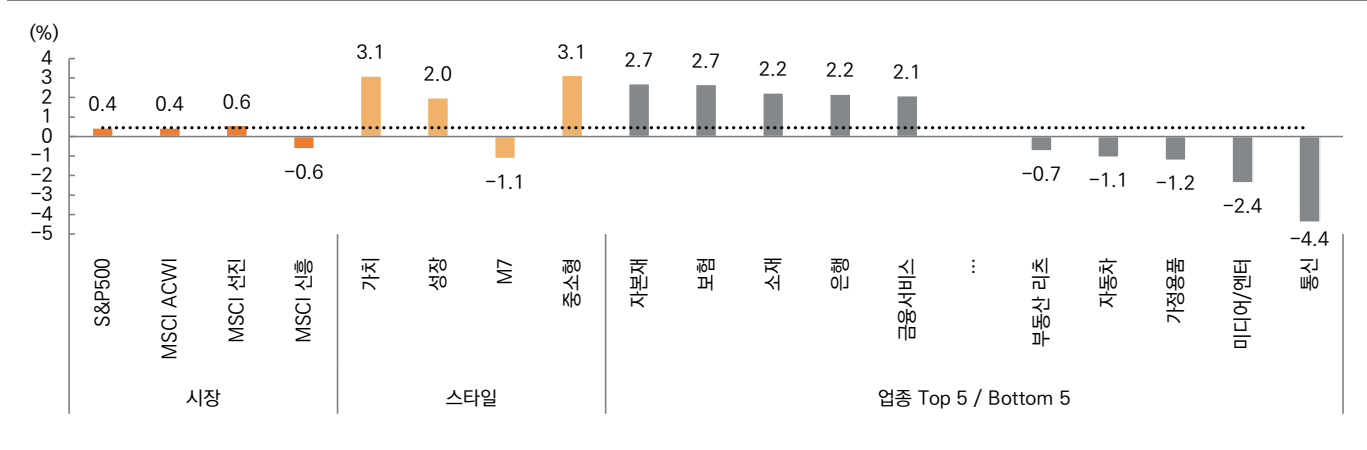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시장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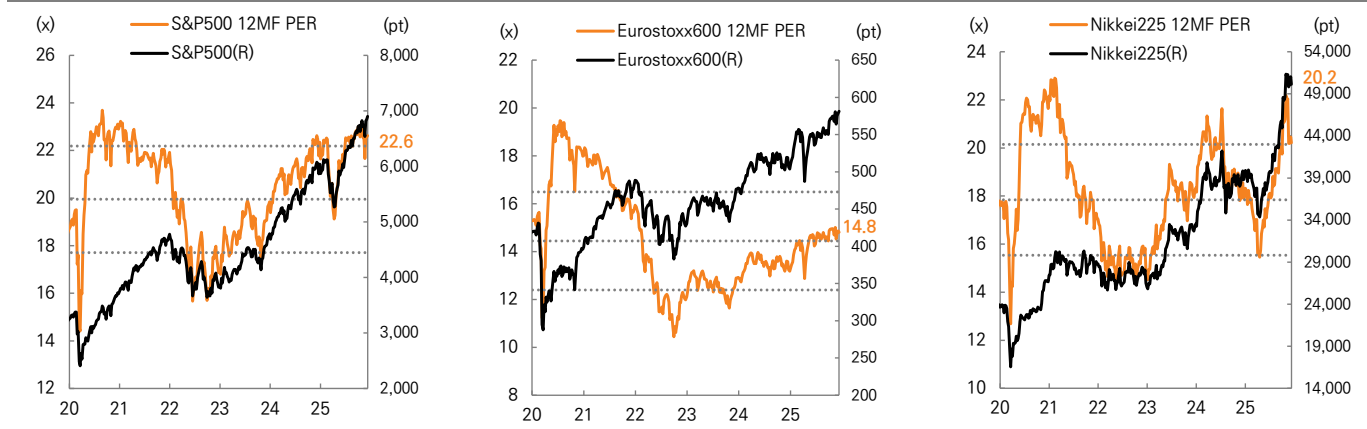
- 글로벌 주식은 보합권에서 마감. 12월 FOMC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상승폭을 제한
- 오라클(-9.2%)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M7(-1.1%) 하락. 오라클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Capex를 늘림
- 테크에 비해 보험(+2.7%), 은행(+2.2%) 등이 강세. 넷플릭스의 WB 인수 발표로 미디어엔터(-2.4%)는 부진
- 중국(-2.3%), 인도(-1.1%)가 하락한 영향으로 신흥국(-0.2%)은 선진국(+0.1%)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S&P500 시장/스타일/업종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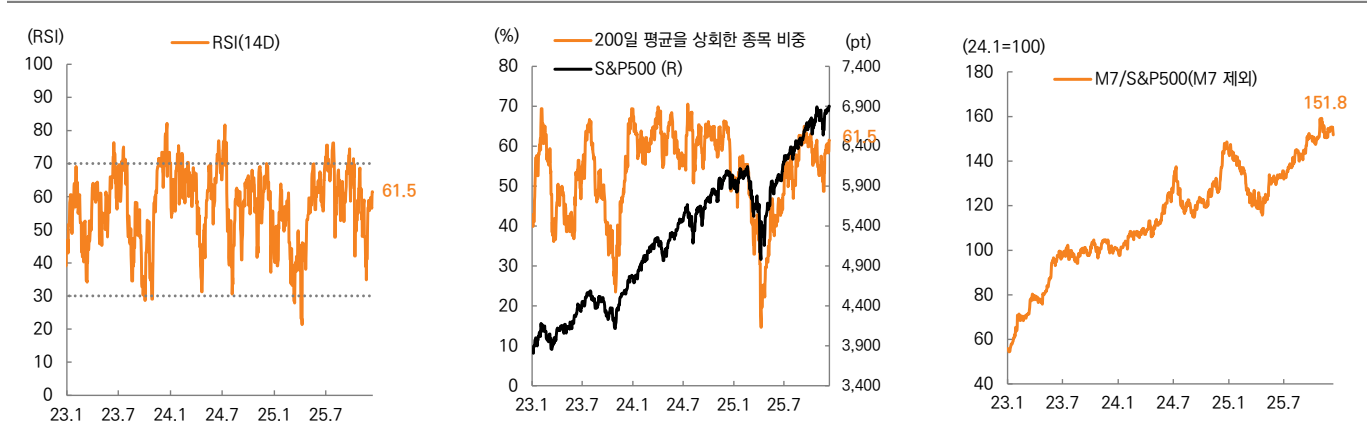
주: 12/5(금) ~12/11(목)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P500 12MF PER Eurostoxx600 12MF PER Nikkei225 12MF PER



주: 점선은 밸류에이션의 19년 이후 평균, ±1표준편차 수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P500 RSI(14D) 200일 평균을 상회한 종목 비중 S&P500 M7 상대 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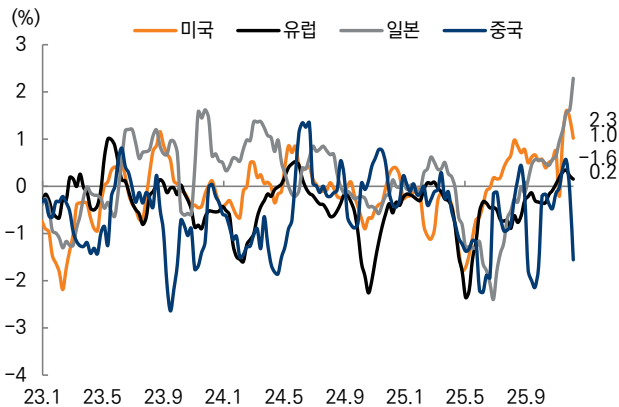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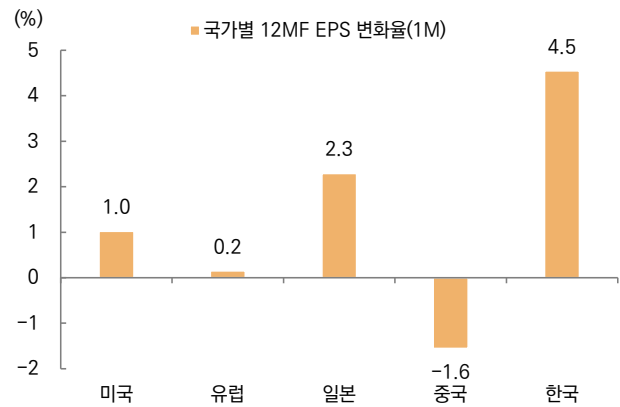
글로벌 이익모멘텀

- 국가별 12MF EPS는 미국(+1.0%), 유럽(+0.2%), 일본(+2.3%) 모두 상향 조정. 중국(-1.6%)만 하향 조정
- S&P500의 4Q25 EPS, 2026년 EPS는 각각 3개월 전 대비 +0.07%, +1.8%로 모두 상향 조정
- 4Q25 EPS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반도체, 에너지, 하드웨어. 하향 조정폭은 운송, 필수소비재 순으로 컸음
- 2026년 EPS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반도체, 소재, 통신. 하향 조정폭은 에너지, 필수소비재 순으로 컸음

국가별 12MF EPS 변화율(1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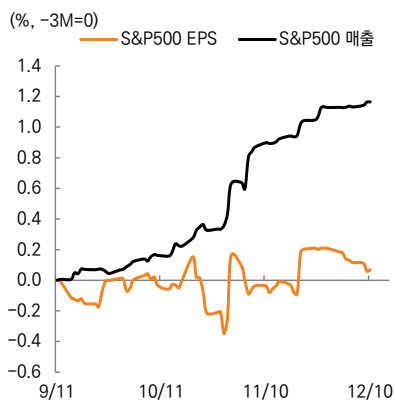


국가별 12MF EPS 변화율(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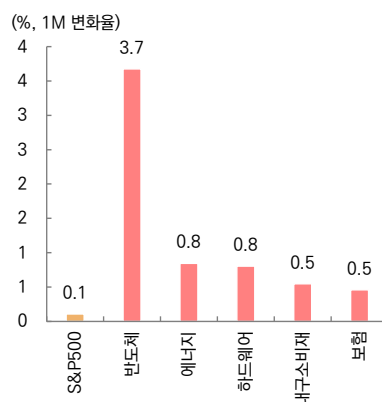


자료: MSCI, Refinit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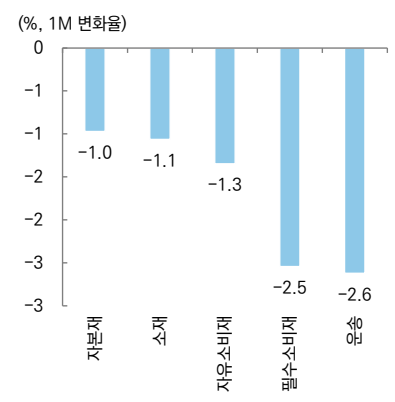
S&P500 4Q25 실적 컨센서스



4Q25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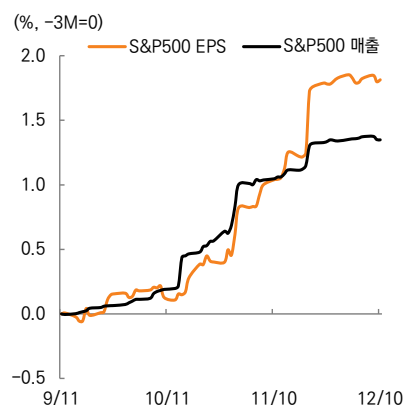


4Q25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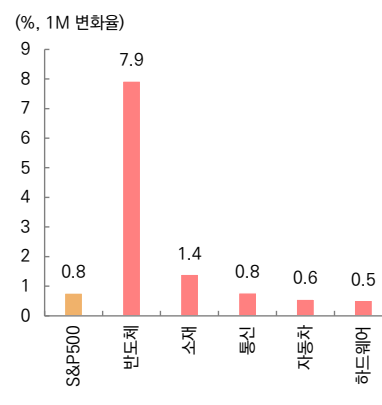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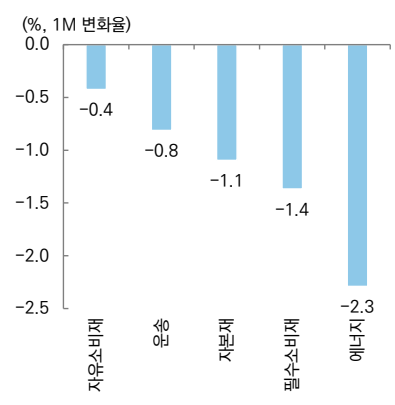
S&P500 2025년 실적 컨센서스



2025년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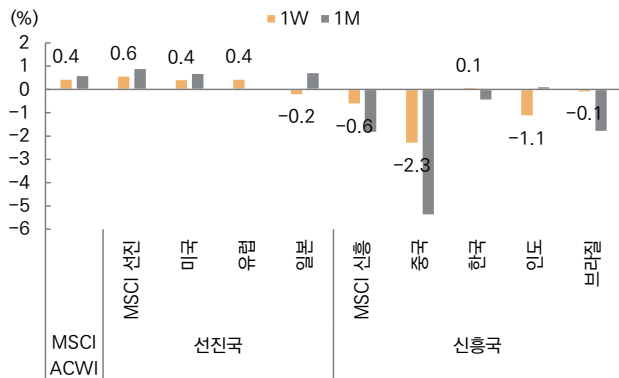
2025년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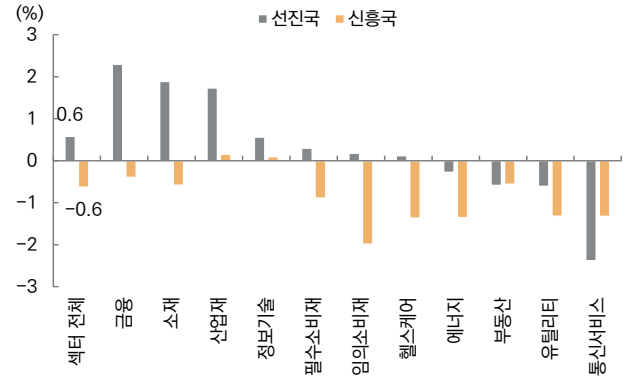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국 증시 및 환율 동향

글로벌 주요국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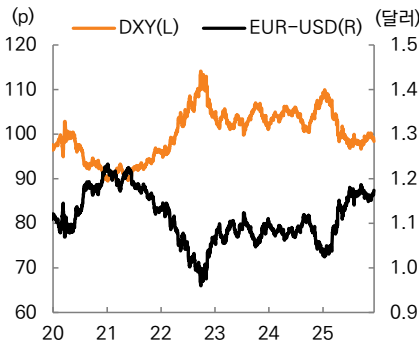


MSCI ACWI GICS 섹터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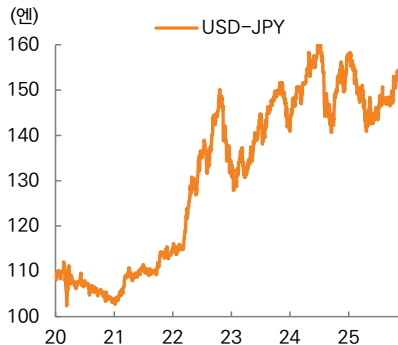


주: 12/5(금) ~12/11(목)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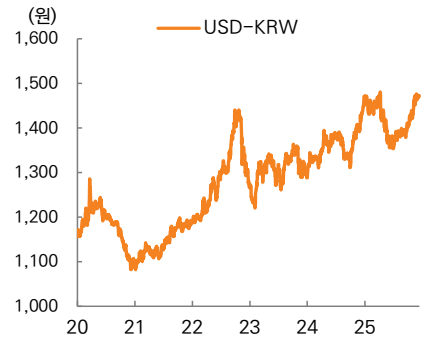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유로 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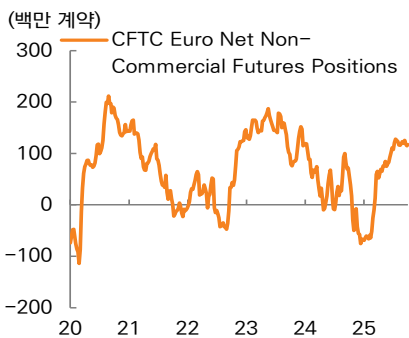
달러-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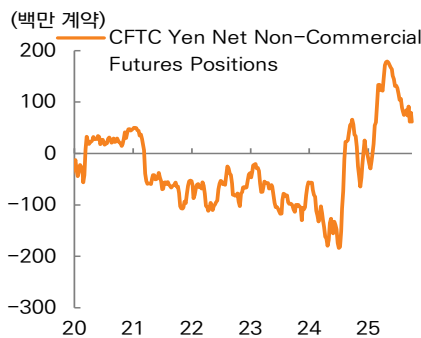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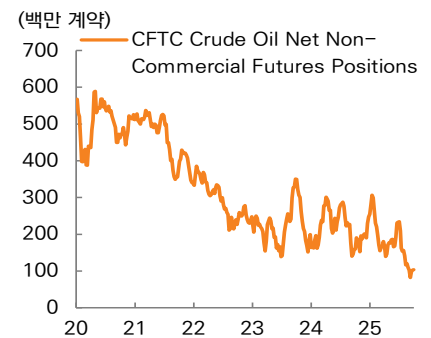
유로화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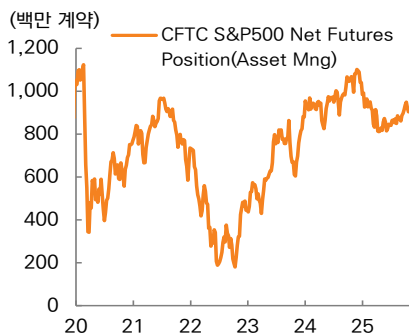
엔화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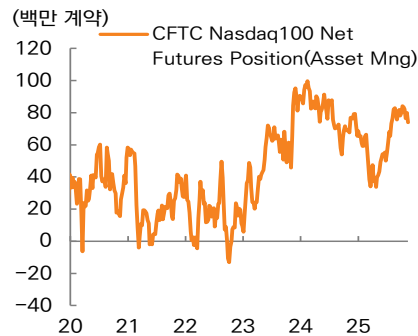
원유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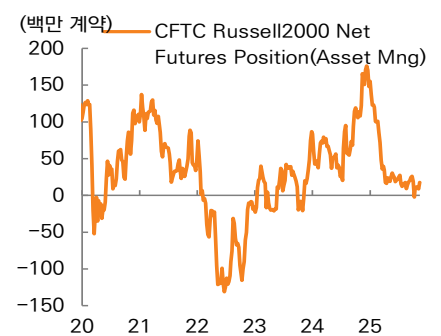
S&P5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Nasdaq 1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Russell 20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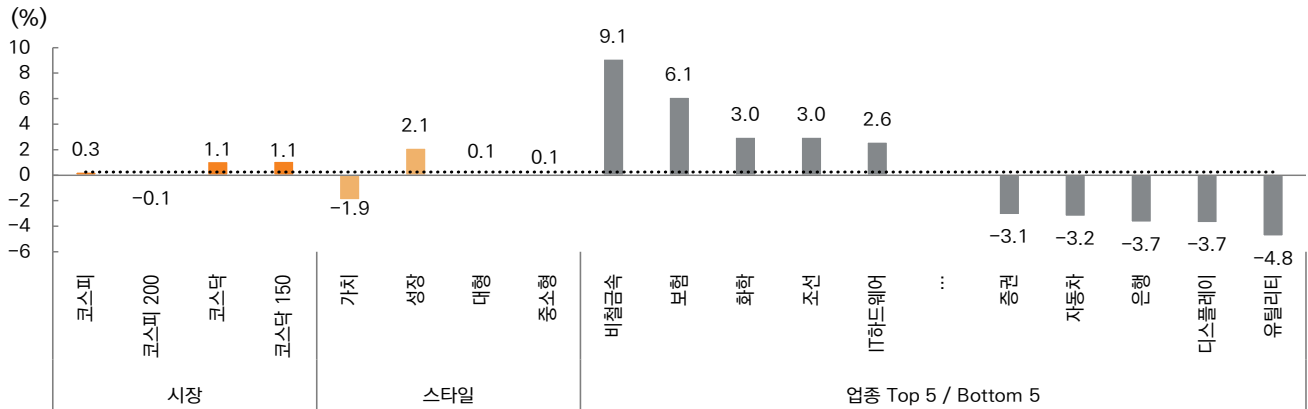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시장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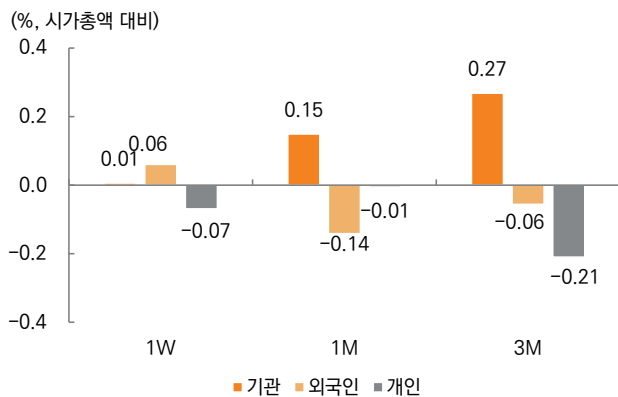
-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0.3%, +1.1% 변동. 성장주 강세.
- 업종별로는 비철금속, 보험, 화학은 상승했고,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은행 업종의 하락폭이 컸음
- 외국인은 한주간 화학,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 순매수, 조선,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업종 순매도 기록
- 기관은 한주간 건설/건축, 조선, 호텔/레저 업종 순매수,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업종 순매도 기록

한국 시장/스타일/업종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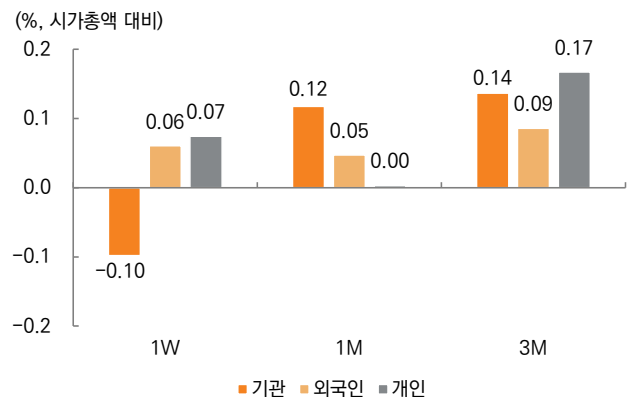


주: 12/5(금)~12/11(목) 증가 기준 /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KOSPI 투자주체별 주간 누적 순매수강도



KOSDAQ 투자주체별 주간 누적 순매수강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관 주간 순매수강도 상/하위 업종 리스트			
상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억원)	순매수강도 (%)
1	건설/건축	1,593	0.34
2	조선	3,348	0.19
3	호텔/레저	223	0.17
4	IT하드웨어	1,130	0.13
5	2차전지	2,511	0.13
하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억원)	순매수강도 (%)
1	디스플레이	-541	-0.34
2	유틸리티	-939	-0.20
3	필수소비재	-1,187	-0.18
4	증권	-1,222	-0.16
5	미디어	-389	-0.11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주간 순매수강도 상/하위 업종 리스트			
상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억원)	순매수강도 (%)
1	화학	4,209	0.38
2	자동차	3,623	0.19
3	유틸리티	513	0.11
4	반도체	12,064	0.11
5	철강	385	0.10
하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억원)	순매수강도 (%)
1	조선	-1,850	-0.11
2	건강관리	-2,235	-0.06
3	소프트웨어	-870	-0.05
4	필수소비재	-292	-0.05
5	2차전지	-710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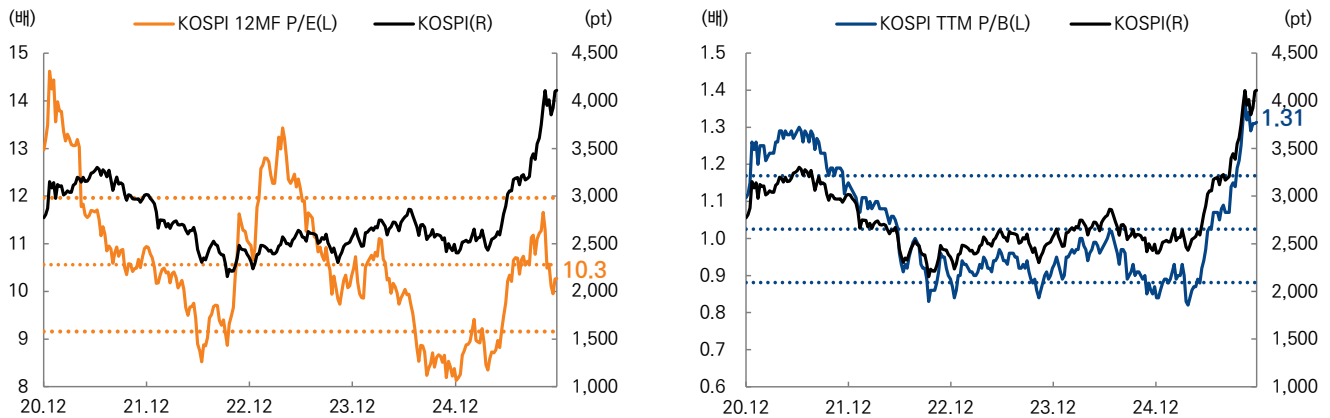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밸류에이션 및 이익 모멘텀

- 코스피 12MF P/E는 10.3배(-0.21 표준편차), TTM P/B 1.31배(+2 표준편차) 수준
- 국내기업 합산 4Q25F, 2026F 영업이익은 최근 1개월간 각각 +1.8%, +3.0% 조정
- 4Q25F 반도체,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업종은 상향 조정. 화학, 운송, 보험 업종은 하향 조정
- 2026F 반도체, 상사/자본재, 에너지 업종은 상향 조정. 2차전지, 운송, 보험 업종은 하향 조정

KOSPI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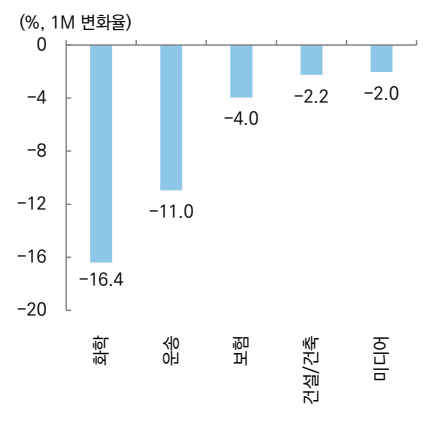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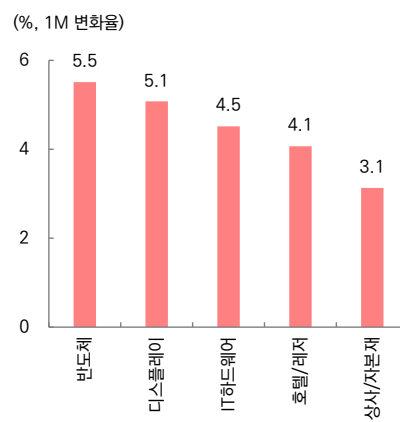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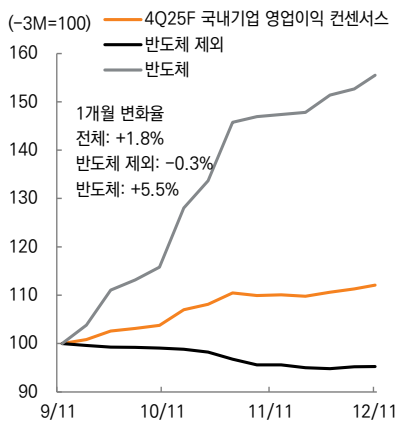
KOSPI TTM PBR



4Q25F 영업이익 컨센서스

4Q25F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4Q25F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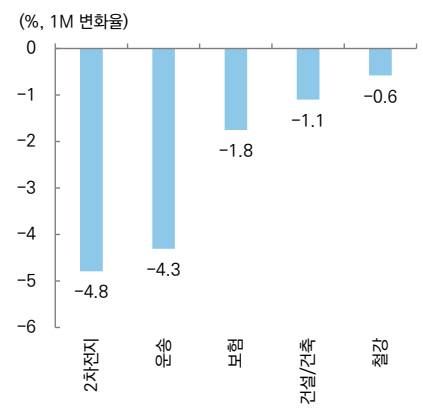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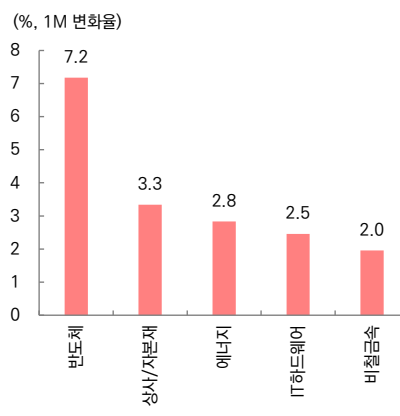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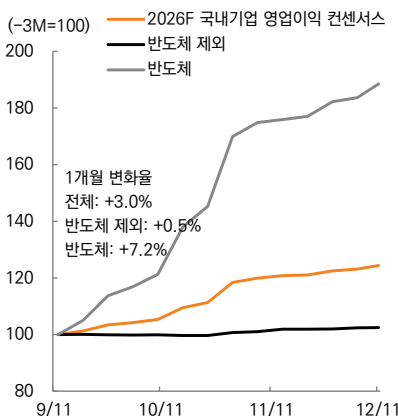


주: 최근 3개월간 4Q25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부 존재하는 기업 합산(총 353사) /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2026년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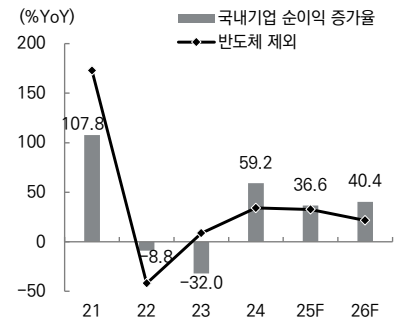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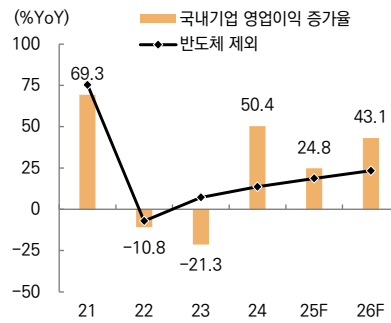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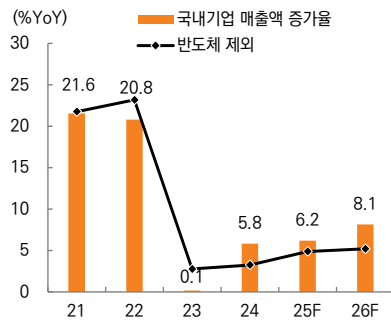
2026년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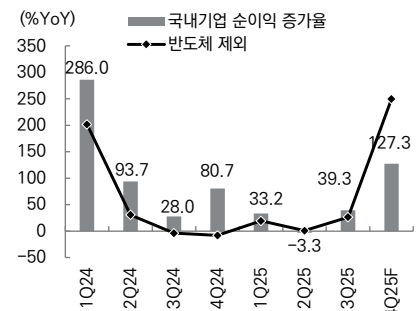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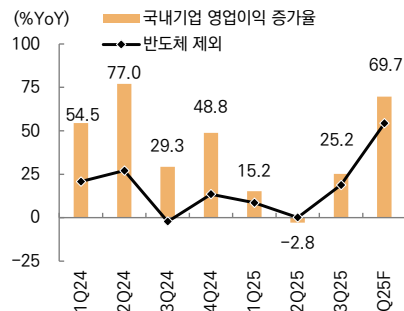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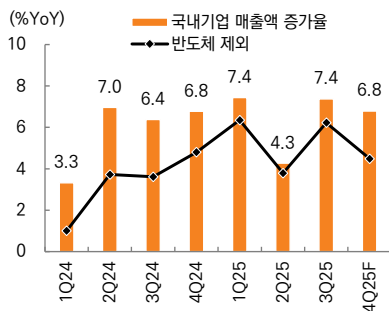
주: 최근 3개월간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부 존재하는 기업 합산(총 353사) /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실적 추정 현황

국내기업 연간 실적 증가율



국내기업 분기별 실적 증가율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구분	주가 상승률			4Q25F 증가율			2026F 증가율			2026F	2026F
	1W	1M	3M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R	PBR
에너지	-1.8	-3.8	11.8	0.0	120.1	흑전	1.4	65.8	69.5	13.4	0.8
화학	3.0	1.2	34.0	-4.6	흑전	적지	8.2	139.8	흑전	29.6	0.9
비철금속	9.1	28.6	33.4	27.2	190.0	흑전	10.8	7.9	7.2	29.9	2.9
철강	-0.7	1.3	3.7	-0.8	428.1	흑전	4.6	53.9	93.2	11.9	0.4
건설/건축	-0.9	6.9	-0.2	-2.9	흑전	흑전	2.1	21.7	12.7	7.5	0.6
기계	-0.5	-0.8	25.3	10.3	52.1	182.9	9.4	31.0	41.1	28.2	3.8
조선	3.0	0.3	4.3	9.6	122.3	25.6	12.5	37.1	49.6	17.3	3.7
상사/자본재	0.7	-0.9	12.4	12.0	43.2	21.9	7.3	23.6	27.4	10.9	1.3
운송	0.2	5.3	-7.2	3.7	-41.0	27.6	1.7	12.1	-1.3	10.2	0.7
자동차	-3.2	10.3	20.8	8.2	-3.6	13.3	4.4	9.5	10.0	5.9	0.6
화장품/의류	-0.5	5.6	-3.4	5.4	39.9	106.3	7.3	18.2	24.3	11.8	1.3
호텔/레저	2.1	11.5	-0.3	19.6	97.3	9.3	8.6	20.5	21.8	13.8	1.2
미디어	0.2	-0.2	-9.8	-1.6	32.0	흑전	9.9	48.9	34.6	19.6	1.7
소매(유통)	-0.5	5.4	6.2	3.4	142.2	흑전	3.0	20.5	55.3	9.7	0.4
필수소비재	-1.0	2.0	-2.3	3.9	11.5	47.6	4.5	12.8	20.2	11.0	1.1
건강관리	1.2	12.0	17.7	16.7	81.5	48.4	13.5	27.9	30.5	32.3	3.2
은행	-3.7	-1.0	5.3	0.0	25.1	26.4		7.6	2.9	7.0	0.6
증권	-3.1	-5.4	-2.3	0.0	52.3	55.0		4.7	0.6	7.0	1.0
보험	6.1	5.9	7.6	0.0	68.9	78.6		10.8	9.2	9.0	0.8
소프트웨어	-2.4	-4.5	-2.0	8.9	39.8	37.6	10.9	23.0	16.7	17.7	1.5
IT하드웨어	2.6	10.6	31.5	13.4	173.8		11.5	81.4	110.0	20.1	2.1
반도체	0.7	-1.9	55.7	21.3	102.2	63.2	25.1	93.1	72.1	8.2	1.6
2차전지	1.6	0.0	35.1	1.0	적지	적지	8.2	227.2	6282.5	57.6	2.3
디스플레이	-3.7	-4.0	-0.3	-5.2	389.0	흑전	5.2	71.6	-10.0	9.5	0.8
통신서비스	-2.6	0.2	-2.1	1.8	흑전	흑전	0.7	11.6	23.3	9.1	0.8
유틸리티	-4.8	-1.0	20.7	-3.8	12.4	38.3	0.1	15.3	19.7	3.6	0.6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